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51. 펴 놓인 작은 책을 먹음

2013. 12. 2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 내용의 일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다음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깨닫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0:5~11]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결코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설명할 차례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부터 설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답: 예, 먼저 6,7을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계10:6,7]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6절 마지막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했는데, 그 지체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7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펴 놓인 작은 책을 연구할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께서 친히 경고하신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마24:36, 행1:7)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와 관련된 표현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2. 그러면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때와는 상관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일까요?

답: 사건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 만일 역사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것인데,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시간을 가르쳐줄 사항이 아니지만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므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복음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하는 표가 된다고 하신 것일 수는 있지요. 제자들이 끝 날에 대하여 물을 때 예수께서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징조들을 가르쳐주시면서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한 문장은 직역을 하면 “시간이 다시없으리라.”또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입니다. 옛날 번역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어떤 작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예언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예언된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그러면 어떤 예언된 기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예언된 기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언된 기간이 있습니까?

답: 성경의 많은 역사적 예언들이 사건 위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예언된 것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 중에는 실제적 기간도 있고 상징적 기간도 있습니다. 실제적 기간의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때 120년이라는 연대가 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 지낼 기간이 70년이라는 연대도 있습니다. 이런 연대는 상징적 예언에 등장하는 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처음 사건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탐지한 기간 40일이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4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민14:33,34) 그 후에 다니엘서에 상징적인 형상들로 예언하시면서 역시 예언 연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의 패턴이지요. 그 중에 한 때 두 때 반 때, 2300주야, 70이레, 1260일 1290일, 1335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은 다 상징적으로 주신 예언적 기간인데,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도록 민수기가 말하고 에스겔 4:6에 하나님께서 친히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예언적 기간 중에 가장 긴 것이 2300주야입니다. 역사적 연대로는 2300년이 되지요. 이 기간이 가장 긴 예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알아본 대로 이 기간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184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한 것은 이 예언적 기간 외에는 다른 예언된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비밀 곧 선지자들이 예언한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 연대로 예언된 시간이 없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언제나 예수께서 오실 가능성이 있는 날들로 이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말씀입니다.

4.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펴 놓인 작은 책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에게 봉하여두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연대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 계시록 10장 사건 때에 이루어질 것

이라는 말씀이군요?(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록된 상황으로 가장 합당합니다.) 예, 펴 놓았다는 말씀의 핵심이 다니엘이 그렇게 알고 싶었으나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하면서 간수해두라고 하신 바로 그 연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10장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답: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섯째 나팔 사건이 진행되는 역사적 기간과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나팔은 1840년에 오토만 제국의 몰락과 관련되어 있고, 또 11장에 있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11장에 예언된 사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프랑스 혁명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사건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일어날 사건에 해당됩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로 떨어진 존재가 교회를 장악하여 심판이 이를 때까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암흑시대, 즉 셋째, 넷째 나팔 시대가 지나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시대를 거치면서 계시록 11장 사건이 성취되는 그럴 무렵에 다니엘서가 연구되고 깨달아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역사적 사건으로서 계시록 10장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입니다.

답: 여섯째 나팔 사건이 전개되고 있던 때는 유럽이나 미주에 격변기였습니다. 유럽은 이슬람 세력이 휩쓸고 비록 변질된 상태에 있지만 기독교라는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 위축되고 또 개신교가 전파되고 있었지만 사데 교회 상태와 같이 되어 있고 이런 때에 신대륙 미주에는 또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독립을 쟁취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태동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새 정부는 청교도 사상이 강한 영향을 미쳤지요. 그들은 개신교적 바탕에 정치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무렵 미국 동북부 지역 침례교 가정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가정의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적 사상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는 1812년 미국과 영국 전쟁에 참전하고 대위로 예편하였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몸소 느낀 가운데 무신론자로서 인생문제를 생각하다가 인생의 종말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세상의 역사적 미래를 예언했다고 하는데 만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하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연구조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불신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니까 한번 연구해서 시험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주성경과 성구사전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차례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기를 시작했을 때가 대략 1816년경이었지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섯째 나팔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적 시기이지요. 그가 윌리암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782년에 출생하고 184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아까 말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하고 그 연대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니엘서가 개봉이 된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2300주야에 대하여 깨닫고 보니 예수께서 1843년쯤 재림하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가 1816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별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예수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가 재림운동의 선구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1818년이라고 합니다. 그의 전도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의 기별을 따르는 사람들이 10만에 이르렀다고 합

니다. 그는 계10:7에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한 것을 재림으로 이해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날자 계산은 맞았을지라도 사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잘못되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다시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2300주야라는 가장 긴 예언적 기간 이후에는 달리 연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300주야가 끝나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제나 재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6.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었네요. 그러니까 2300주야 기간이 지나간 지금은 언제든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라는 말이네요.(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까?

답: 말세!. 참 좋은 단어를 말했군요. 말세에 대한 것은 언젠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말세는 기간이 있는 말세 기간과 말세 기간의 마지막인 말세가 있다고 했지요.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이 지나면 말세가 됩니다.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났을 때부터는 예수께서 언제나 재림하실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기간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2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3년 반 기간이 끝났을 때부터는 그렇지요. 그리고 시간이 다시없다고 한 때부터도 170년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연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7. 이제 목사님께서 밀러가 전파하던 당시에 10만에 이르는 추종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의 소망은 대단했겠습니다.

답: 그렇지요. 그들이 숨 쉬고 있는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신천신지로 변할 것을 생각했을 것이니 얼마나 가슴 부푼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밀러의 전도를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 곧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재림하실 때가 그들의 시대에 있을 것이라고 알았을 때 그 맛이 꿀맛으로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장은 펴 놓인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계10:8~11]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 분명히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지요.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결과는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요한이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한대로 그 달기가

꿀맛에 비기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1982년입니까? 한국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떠들썩하던 해가 말입니다. 그때 다미선교회인가 하는데서 전하는 휴거를 믿는 사람들의 들뜬 모습에서 우리는 1844년 당시 입에 달았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빗나갔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감은 배에서는 쓰더라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때 10만이 넘는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설명 안 해도 짐작할 수 있지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는 솔깃하기는 했지만 정말 믿지는 안 했어라고 하면서 떠났고 결국 5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남았었는데, 그들도 각각 자기들대로 달리 해석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그마한 교파들이 되었지요. 당시 역사를 보면 두 번 실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 두 번 실망했다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답: 밀러가 처음에는 1844년 3월경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3월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는 날 재림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3월 유월절에 재림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만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밀러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대 계산을 또 해보고 또 해보았지요. 그래도 2300주야에 대한 연대 계산에는 아무런 착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겨두셨는지 스스로도 아주 답답했지요. 그러니까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지요. 그러던 그해 여름 8월에 큰 장막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한 소망으로 뭉쳐서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무리들이 지리멸렬해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단합대회를 위한 것이었지요. 그 장막회 주장을 맡은 사람이 죠셉 베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해진 회중을 일으켜 세울 묘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중언부언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베이스 목사님, 할 말이 없으면 그만 하시고 할 말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지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여기 스노 장로가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목사는 스노씨에게 나와서 기별을 말하라고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 스노씨가 나와서 밀러가 착각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밀러가 2300주야의 시작을 기원전 457년 유월절로 잡은 것입니다. 스노씨는 말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유월절이 아니라 대속죄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죄일인 유대종교력 7월 10일이 시작점이라고 성경의 확실한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무기력한 상태에서 지리멸렬한 회중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노씨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설명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회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은 스노씨의 설명을 따라서 부지런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때가 8월입니다. 연대는 맞은데 날짜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산해보니 유대인의 속죄일인 유대 종교력 7월 10일이 양력으로 그해 10월 22일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 22일이 올 때까지 목청껏 외쳤습니다.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그런데 역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실망했지요. 두 번째 실망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정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실망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헛된 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런 실패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성경을 살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연구하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10. 예, 그랬군요. 정말 지금 말로만 듣는 우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 운동이 그냥 한바탕 지나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답: 아니지요. 11절 말씀에 기록한대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펴 놓인 작은 책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다 보셨고 그 사실을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몰입하고 흥분하면 사리의 분별이 어렵게 됩니다. 밀러와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상태에 빠졌지요. 연대 계산이 너무나 확실하고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분명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하신 그 날과 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신 그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국자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말씀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즉위하실 것만을 가슴에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밀러 운동 당시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지요. 이미 여섯째 나팔에서 조시아 릿지 목사의 해석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요. 오토만 제국이 1840년 8월 11일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것 말입니다. 릿지 목사도 밀러운동에 참여한 장로교 목사였거든요. 그도 밀러가 계산한 예언상 1일이 역사적으로 1년이라는 그 원칙을 배워서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해석의 성취는 밀러의 재림 날짜 설명이 확실하다고 믿는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것이 되었으니까, 다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별을 들었을 때 냉정하게 그것이 그런가하고 성경 전체를 살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11.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답: 밀러가 해석한 예언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 자체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유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망한 사람들이 다 성경의 진리를 버릴 것이 아니고 다시 연구하여 바른 기별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음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예, 그렇군요.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예언해주시고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엄청난 역사적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나 그들이 입에 달았던 만큼 배에 쓰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그 해석에 몰입해서 예수께서 경고한 말씀을 잊어버린 탓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성경 전체를 살피는 지혜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